

동성부부, '사실혼 법적권리' 첫 인정 사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혼인 실체 충족" 주장했으나 1심 패소 2심,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동성부부에게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부부가 누리던 권리를 사법 영역에서 인정할 최초 사례이다.

소송 당사자 부부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혼인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한 가지를 얻은 것'이라며 입법 영역에서의 동성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

소 판결했다.

소씨의 배우자 김용민씨는 "이 소송은 우리가 둘만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둘이 대표하는 것일 뿐"이라며 "동성 부부들의 평등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승리했지만, 이 소송으로 얻어낸 권리는 혼인이 얻어낼 수 있는 100가지 권리 중 단 한 가지"라며 "그래서 우리에게 동성혼 법제화가 필요하고, 그제 우리가 나아가길"이라고 했다.

소씨는 "우리 부부를 비롯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있었는지 사법부 판단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정부 역

시 차별과 혐오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대리한 박한희 변호사는 "동성 배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용납하지 않는 차별"이라며 "앞으로도 성별이분법, 정상 가족 담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부부에게도 사실혼 관계 이성부부에게 인정하던 법적 지위·권리 등을 사법 영역에서 인정할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려져 있는 동성 부부와 관련한 법원 판단은 2003년 인천지법에서 심리한 동성 부부의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소송이 유일하다. 당시 인천지법은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는 아직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건보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희신을 받고 취득 신고를 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소씨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김씨가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한 것이다. 통상 남녀간의 사실혼 관계에서는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가입 기록을 삭제했다. 김씨와 소씨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소씨 등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이므로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고, 동성결혼의 인정 여부는 입법의 영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선욱기자



나주경찰, 나주시 U-CITY 통합관제센터 감사장 수여

나주경찰서장(총경 박상훈)은 나주시 U-CITY 통합관제센터에서 세밀한 모니터링으로 사회적 약자인 치매노인 발견에 기여한 관제센터 요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완도소방, 전남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정식 종합우승 다짐

완도소방서(소방서장 김옥연)는 지난 21일 2023년 전남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출정하는 선수단을 격려하고 필승 의지를 다지는 출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사회 "특전사 초청 5·18 정신 훼손 행사, 대책 기구 출범"

단체 임원진 책임, 사퇴 촉구 등 방침 21일 기자회견 열어 공식 출범 발표

광주 지역 사회가 5·18민주화운동 일부 단체(부상자회·공모자회) 집행부와 (사)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가 강행한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 선언' 행사 후속 대응으로 대책 기구 결성을 공식화했다.

대책 기구는 '부상자회 등 5·18 일부 단체 집행부가 5·18을 사유화하고 가해자 계엄군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점에 의견을 모으고 단체 임원진에 책임을 물어내갈 방침이다.

지역 113개 시민 단체로 이뤄진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 대책회의 추진단체'(추진단)는 21일 오전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회의에 앞서 주제 발표에 나선 (사)광주전남6월항쟁 박흥산 상임이사는 "대국민 공동 선언" 행사를 '2·19 폭거'라고 지칭, 이를 주최한 부상자회·공모자회 집행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행사의 본질을 깨달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대국민 공동 선언은 5·18에 대한 또다른 왜곡의 서막이자 진상규명과 화해라는 가면을 쓰고 자행된 또다른 폭력 행위"라며 "이들의 선언문에는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 누구에게도 사죄한다는 내

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군부의) 명령에 충실했을 뿐이었다는 계엄군도 그들의 총구가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와서 이들이 어떤 사과와 반성도 없이 화해와 포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 왜곡의 또다른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 마련은) 5·18을 바로세우는 동시에 광주 공동체를 내부로 분열시키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급급한 적폐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역사 투쟁"이라며 "(지역사회가)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직면할 장벽은 더 높고 험난할 것"이라고 대책 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진단은 이후 회의를 열어 대책 기구인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 대책위원회'(대책위) 발족에 뜻을 모았다.

추진단은 역대 5·18행사위원장, 역대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5·18 관련 원로들이 고문단을, 학계 5·18 연구자와 법조, 언론인 등을 각 분야 자문단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여한 모든 단체가 대표자를 꾸려 전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대책위 주요 방향과 방침을 결정하기로도 합의했다.

후속 활동으로는 황일봉 부상자



광주 지역 113개 시민 단체가 21일 오전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 대책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일부 단체(부상자회·공모자회)와 (사)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 선언식' 행사를 규탄하며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회장과 정성국 공모자회장, 휘하 집행부를 향한 사과 촉구와 퇴진 운동을 예고했다.

회의 과정에서 언급된 ▲현 정부의 5·18 시각 재확인 ▲대국민 선언식에 연루된 음모와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 ▲일부 단체를 향한 분명한 입장 표명 촉구 등 내용도 보완하고 함께 다룰 방침이다.

추진단은 오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위를 공식 발표한다.

류봉시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대책위를 구성하는데 시민 단체 간 큰 뜻이 모였다"며 "후속 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상자회 집행부 등은 지난 19일 오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

센터에서 특전사회를 초청해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 선언'을 열었다.

행사는 5·18 피해 당사자가 당시 투입된 계엄군과의 화해에 나서 드러나지 않은 5·18 진상규명에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그러나 행사에 앞서 계엄군의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고 지역 사회와의 충분한 숙의도 없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여러 시민 단체가 행사 반대 입장과 성명을 쏟아냈다.

끝내 집행부가 행사를 강행, 국립 5·18민주묘지를 기습 참배하고 최익봉 특전사회 총재가 행사 도중 5·18 왜곡 발언을 하면서 지역 사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환기자



담양소방, 민간전문가 참여 합동 안전점검 실시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겨울철 기간 관내 화재취약 대상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기, 가스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안소방,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안내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화재예방을 당부했다.



강진소방, '119 누르고 건강정보 말하고' 스티커 제작 배부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겨울철 자체특수시책의 일환으로 '119 누르고 건강정보 말하고' 스티커를 자체 제작 후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배부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전남병무청, 대학 및 교육청 병무담당 교육 실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최근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광주전남 지역 40여개 대학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병무담당 교육을 실시했다.



두근두근 학교생활 미리보기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두근두근 학교생활 미리보기' 연수에 참석하고 있다.

술 취해 출동 경찰관에 흥기 휘두른 60대 체포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흥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경 수원시 팔달구 자신이 거주 중인 원룸 건물에서 경찰관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들은 도난 사건 신고를 받고 해당 원룸 건물을 탐문 중이었다. 해당 경찰관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